

10월 4주차

주간 매크로 투자회의

좋아지기 위한 토대, 결국 Trade



주요 시장동향 및 차주 전망

시장동향 (10.14 ~ 10.18)

주식

미중 무역협상 1단계 합의안 도출, 영국과 EU의 브렉시트 초안 합의로 글로벌 불확실성 해소 및 지수 상승. 단, IMF 세계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 등 침체 우려 잔존

금리

미중 무역분쟁 이슈 완화가 한국 경기에 대한 기대로 작용하면서 금리는 상승.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금리 상승 추세 지속

환율

미중 무역분쟁 완화 기대감이 긍정적으로 작용. 한국에 대한 기대보다는 달러 인덱스가 99pt에서 97.18pt까지 빠르게 하락한 것이 요인으로 작용

유가

주 초반 美中 무역갈등 일부 완화 + 브렉시트 합의안 도출 영향으로 유가 반등. 그러나 높은 美 원유 재고 + 글로벌 경기 악화 가능성과 中 부진한 지표로 하락 전환

지수밴드 및 향후 전망 (10.21 ~ 10.25)

주식

KOSPI200 영업이익 하향 조정이 지속됐지만 실적 하향세가 주가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악재에 둔감한 시기. 차주 홍콩 인권법 등 주식시장 변동성 자극에 유의

금리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경기 회복 효과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금리의 상승 여백은 제한적

환율

미중 무역분쟁 완화 이슈가 조금 더 작용하면서 달러 인덱스 하락도 이어질 것으로 판단. 다만 이슈의 강도는 조금 낮아질 것으로 판단

유가

OPEC+ 감산 강도 강화 가능성은 가격 지지하는 요인. 다만, 現 부진한 경기 상황은 공급보다 수요 이슈에 더 민감. 당분간 美 재고 이슈가 노이즈로 계속 작용할 것

구분	등락률(%)		종가(10.18)	차주 지수밴드
	주간(%WoW)	월간(%MoM)		
KOSPI	0.79	-0.48	2,060.69	2,020 ~ 2,100 pt
KOSDAQ	2.17	0.24	646.69	620 ~ 665 pt
국채3년	10.0 (bp)	6.9 (bp)	1.375	1.25% ~ 1.45%
원/달러	-0.61	-0.82	1,181.50	1,165원 ~ 1,190원
WTI	-1.68	-7.55	53.78	\$50.00 ~ \$55.00

주요 경제지표 발표 및 이벤트

Date	국가	지표	예상치	실제치	이전치
10/15	영국	8월 실업률 (3개월 평균)	3.8%	3.9%	3.8%
	중국	9월 CPI (YoY)	2.9%	3.0%	2.8%
		9월 PPI (YoY)	-1.2%	-1.2%	-0.8%
10/16	독일	10월 ZEW 서베이 예상	-26.4	-22.8	-22.5
	미국	9월 소매판매 추정 (MoM)	0.3%	-0.3%	0.6%
	한국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기준금리 결정	1.25%	1.25%	1.50%
10/18	유럽	9월 CPI (확정치, YoY)	0.9%	0.8%	0.9%
	중국	9월 광공업생산 (YoY)	4.9%	5.8%	4.4%
	미국	9월 컨퍼런스보드 경기선행지수	0.0%	-0.1%	-0.2%
10/21	한국	10월 1~20일 수출 (YoY)	-/-	-/-	-21.8%
10/24	한국	3분기 GDP SA (잠정치, QoQ)	0.5%	-/-	1.0%
	미국	10월 내구재 주문 (잠정치)	-0.6%	-/-	0.2%
		9월 신규주택매매	702k	-/-	713k
	유럽	10월 마켓 유로존 제조업 PMI (잠정치)	46.0	-/-	45.7
		10월 ECB 정책금리	0.000%	-/-	0.000%
10/25	독일	10월 IFO 기업환경	94.5	-/-	94.6
	미국	10월 미시간대 소비자신뢰 (확정치)	96.0	-/-	96.0
10/27	중국	9월 산업생산 (YoY)	-/-	-/-	-2.0%

주요 이벤트

✓ 미국 상원의 홍콩 인권법 통과 여부(10/16 이후)

미국 하원, 10월 15일에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을 통과. 해당 법안은 세 가지인데, 1) 미국 정부는 중국과 별도로 홍콩이 가지고 있는 특별행정구역으로서의 지위를 이어갈 지 매년 재검토, 2) 홍콩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람들에 대한 미국 비자 발급 제한 및 자산 동결, 3) 미국 기업이 고 무탄, 최루탄 등 시위 진압과 관련된 무기와 장비를 홍콩에 수출 금지가 이에 해당. 홍콩 정부 측 대변인은 외국 의 회가 홍콩 내부 문제에 간섭해서는 안된다고 반발. 이 법이 시행되려면 미국 상원 통과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필요한데, 23명의 미국 상원의원이 해당 법안을 지지하는 의사를 밝혀왔기에 상원 통과까지는 무난하게 이루어질 전망. 다만 일각에서는 홍콩에 직접적인 도움은 제한적이고 중국 정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존재

✓ 이낙연 국무 총리 일본 방문(10/22~24)

이낙연 국무총리가 22일로 예정된 일왕 공식 즉위식에 한국 정부 대표로 참석 예정. 이낙연 총리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면담이 예상되는데,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 되지 않은 상황. 아베 총리는 일본은 한국과의 대화를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대화 기회를 닫을 생각은 전혀 없다고 발언. 또한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이며 북한 문제를 비롯해 한미일 협력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국제법에 토대를 두고 국가간의 약속을 준수해야 한다는 일본 정부의 대응 방침을 밝힘. 이 총리의 일본 방문에 앞서, 외교부는 한일 외교국장이 일본의 수출규제, 강제징용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발표



Strategist's Comm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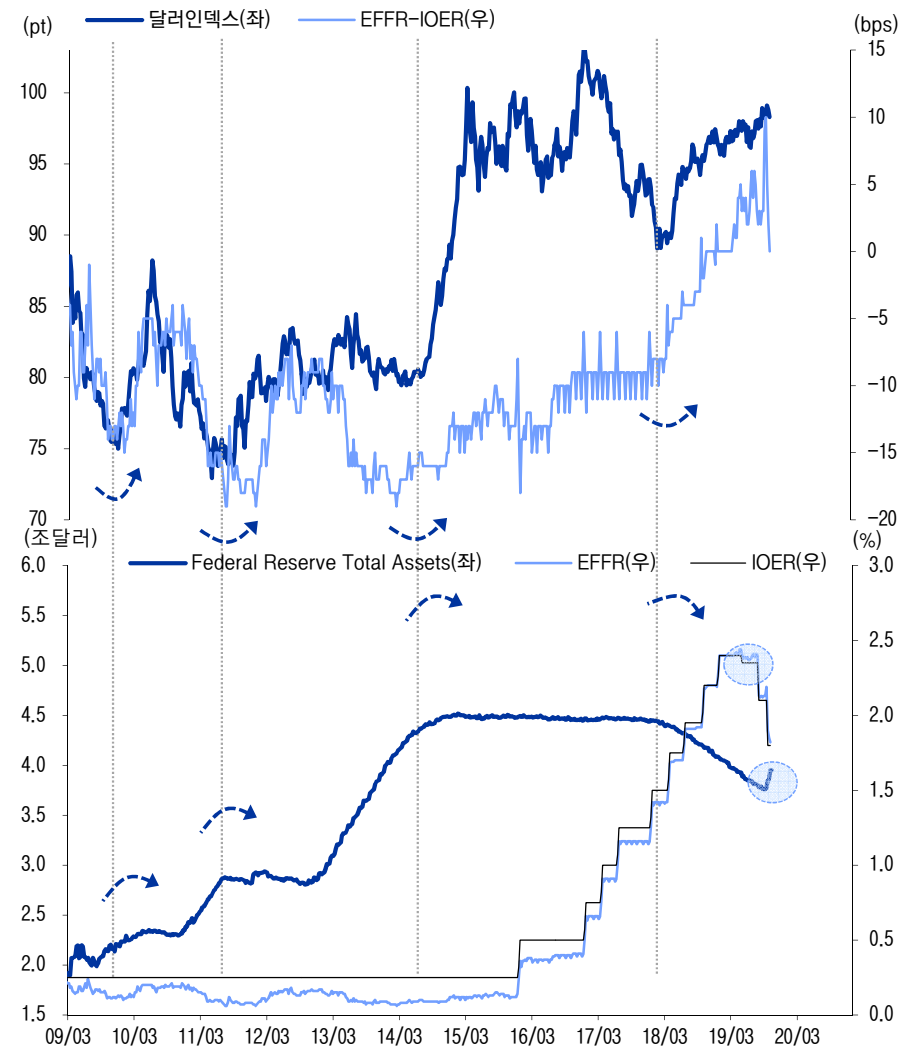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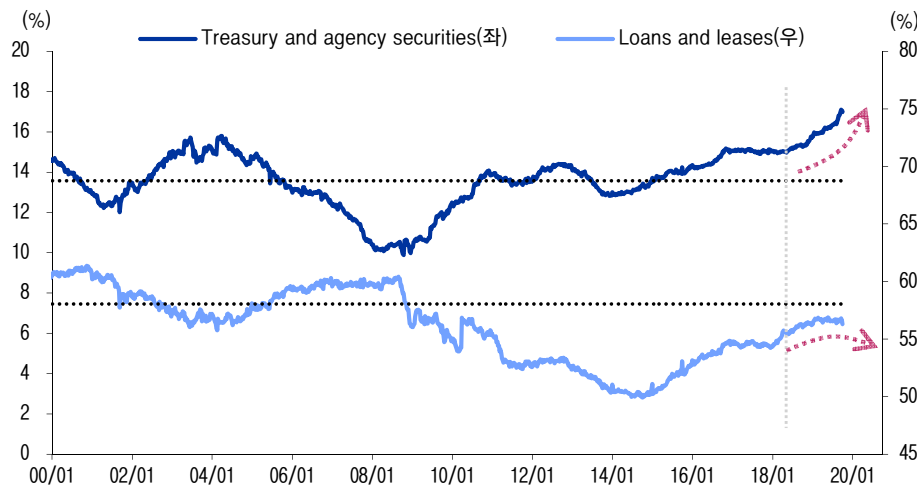
Chief Strategist 신중호

eBEST

좋아지기 위한 토대, 결국 Tra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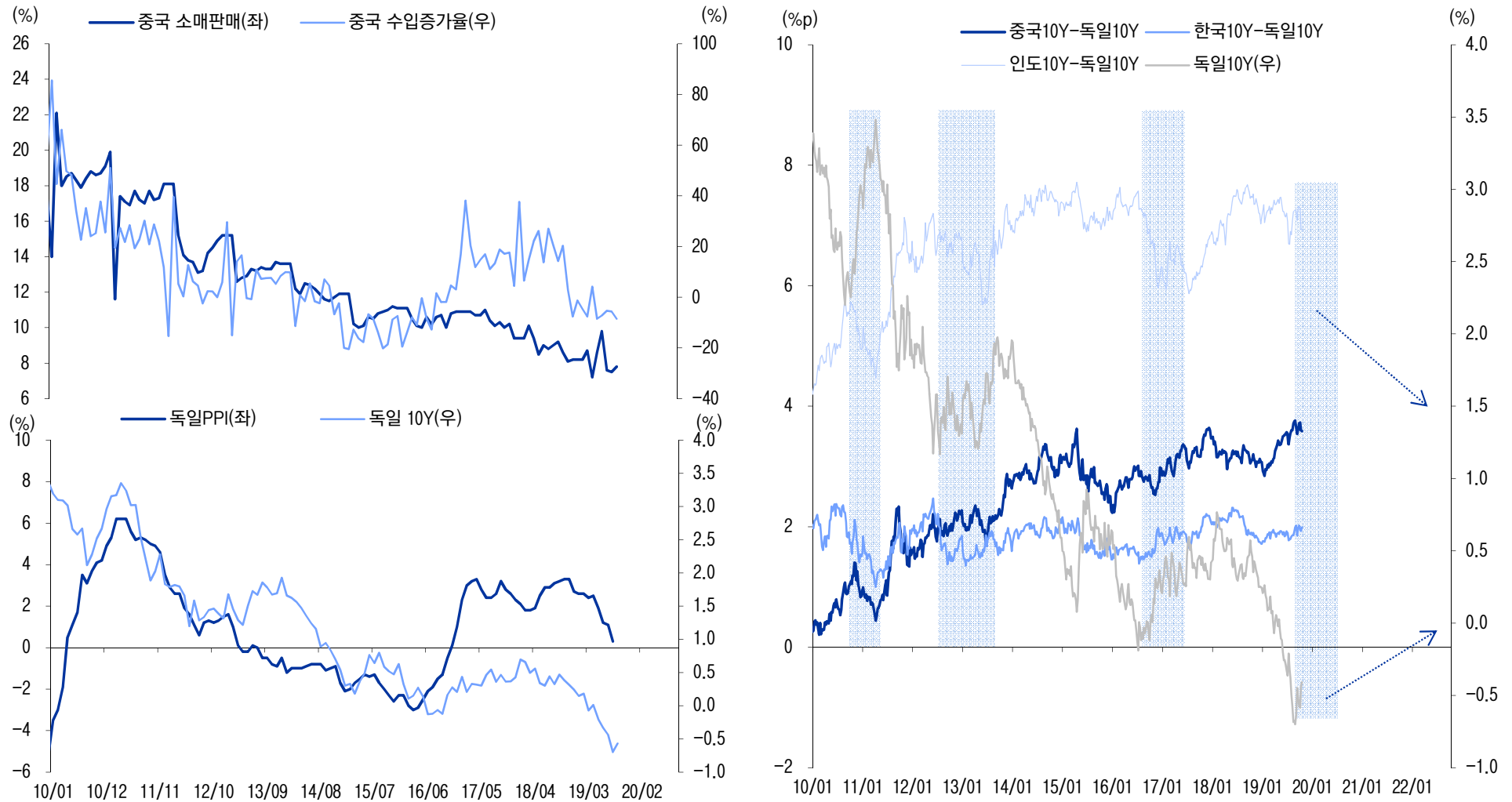
- ✓ 연준, 달러화를 위한 조치. 2014년 이후와는 확실히 다른 방향. 금리인하와 자산확대. 미국 외 수요회복을 위한 기본은 결국 달러화의 약세
- ✓ 중국, 전주 지표로는 확연히 돌아섰다는 판단은 미흡. 다만, 부동산 시장 안정과 함께 여전히 정책기대를 가져갈 수 있다는 정도의 기대감. 중국소비(국경절 앞둔 이연수요)의 10월 회복여부
- ✓ 결국 중국 위안화 소비력(무역확대)이 관건, 중국 외 생산활동 증가 → 생산자 물가 회복. 마이너스 금리 채권의 손실과 채권시장 내 (+) 일드헌팅 수요 확대

미국 상업은행 총자산 중 국채보유 및 대출비중



자료: Bloomberg,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Strategy – 무역(생산과 소비의 분리)



자료: Bloomberg,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E BEST Talk

E BEST^o



Economist 최광혁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감이 영국의 연장 요청으로 일부 완화되고, 미중 무역분쟁도 협상에 서명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기면서 글로벌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부정적으로 흐르지는 않을 것. 다만 이슈의 해결과 실질 경기의 회복을 기대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본격적인 3/4분기 어닝 시즌을 앞두고 이익추정치 하향 조정이 더욱 큰 폭으로 이루어짐. 원인은 자동차 업체와 IT 업체의 총당금 설정으로 인한 일회성 비용 반영 때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익추정치 상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한국 전체 실적 추정치 하향 조정 폭이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우려를 자극할 수는 있으나, 펀더멘털이 아닌 일회성 요인 반영이라는 점에서 시장의 충격이 크지 않았다는 점은 기억할 필요가 있음



Quant 염동찬



Quant 정다운

S&P 500이 상승 추세로 전환하기 위한 필요 조건 중 하나는 기업이익 성장에 대한 가시성 상승 불과 1~2주 전까지 컨센서스는 4Q19 S&P 500의 순이익 증가율을 1% YoY 이상으로 예상 그러나 10/18(금) 기준 0.1% YoY으로 하향된 상황

3Q19 실적 시즌 초반부가 진행 중이며, 낮아진 컨센서스 대비 양호한 발표치에도 불구하고 4Q19에 대한 컨센서스 흐름이 낮아진다는 것은, 여전히 이익성장성에 대한 가시성이 낮다는 의미 팩터 관점에서는 이익 모멘텀 강세 요인: 성장성에 대한 프리미엄 확대 & 실적 시즌의 계절성

OPEC 사무총장이 감산 강도 강화에 있어 모든 가능성 열려있다 언급. 다만, 내년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요 + 증가세가 유지될 美 산유량은 가격의 상승보다는 하락 방어에 더 치중. 낮은 기저로 기대 인플레이션은 일부 반등하겠으나, 원자재 시장 전반의 반등으로 작용하기에는 제한적 3Q19 중국 GDP 성장률은 당초 시장에서 우려한 6%대 붕괴는 면함. 다만, QoQ -0.2%p 둔화. 소비지표 반등했으나, 회복이라 보기는 아직 어려움. 한편, 재정부의 소비세 개혁 입법화 언급. 소비세 대부분은 주류/자동차 구성. 아직 구체 내용 없으나, 소비 회복에 일부 일조 가능한 부분



China/Commodity 최진영

Economy – 한국 실업률, 경기회복의 신호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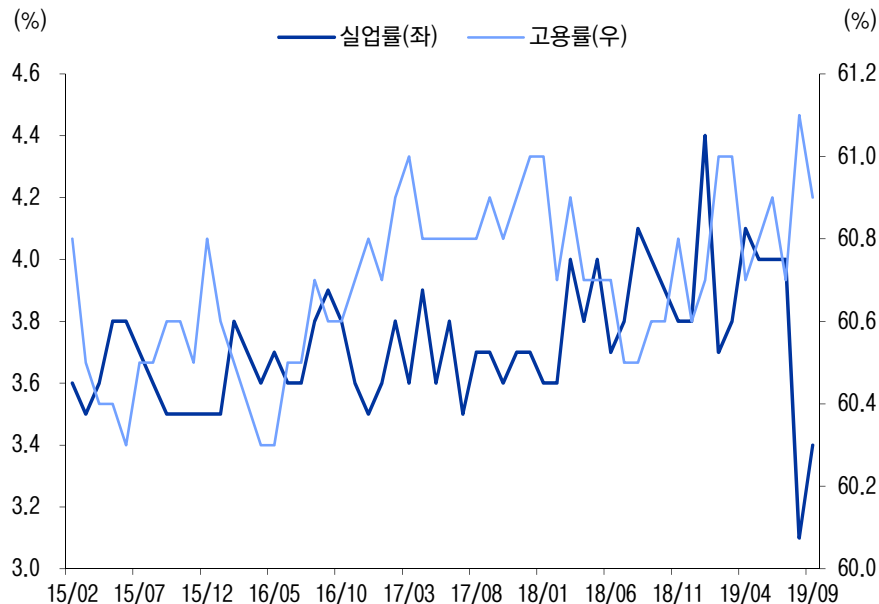
● 한국 실업률 급등락

- 한국 실업률이 7월 4%에서 8월 3.1%, 9월 3.4%로 변동성 확대
- 고용률의 변화는 7월 60.7%에서 8월 61.1%로 0.4%p반등. 지나친 변동성으로 실질적인 고용 개선에 대한 의구심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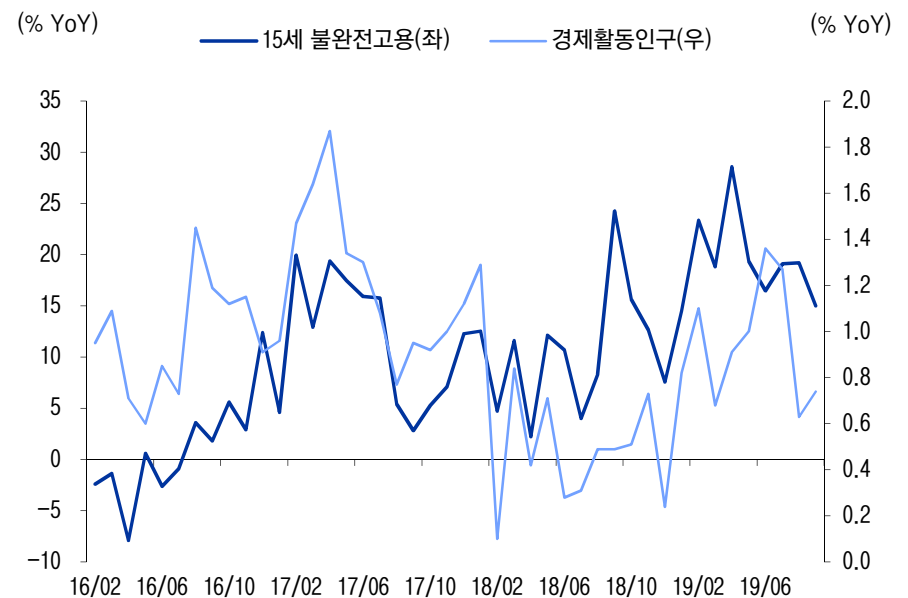
● 불완전 고용의 증가세 지속

- 한국의 9월 불완전 고용 증가율이 15%로 여전히 높은 수준. 한국 불완전 고용은 2016년 12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 2019년 7월과 8월 경제활동인구가 급락했다는 점도 실업률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
- 소폭의 고용개선 효과를 존재할 수 있지만 현재의 실업률 하락을 기준으로 경기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한국 실업률과 고용률 추이



한국 15세 이상 불완전고용과 경제활동인구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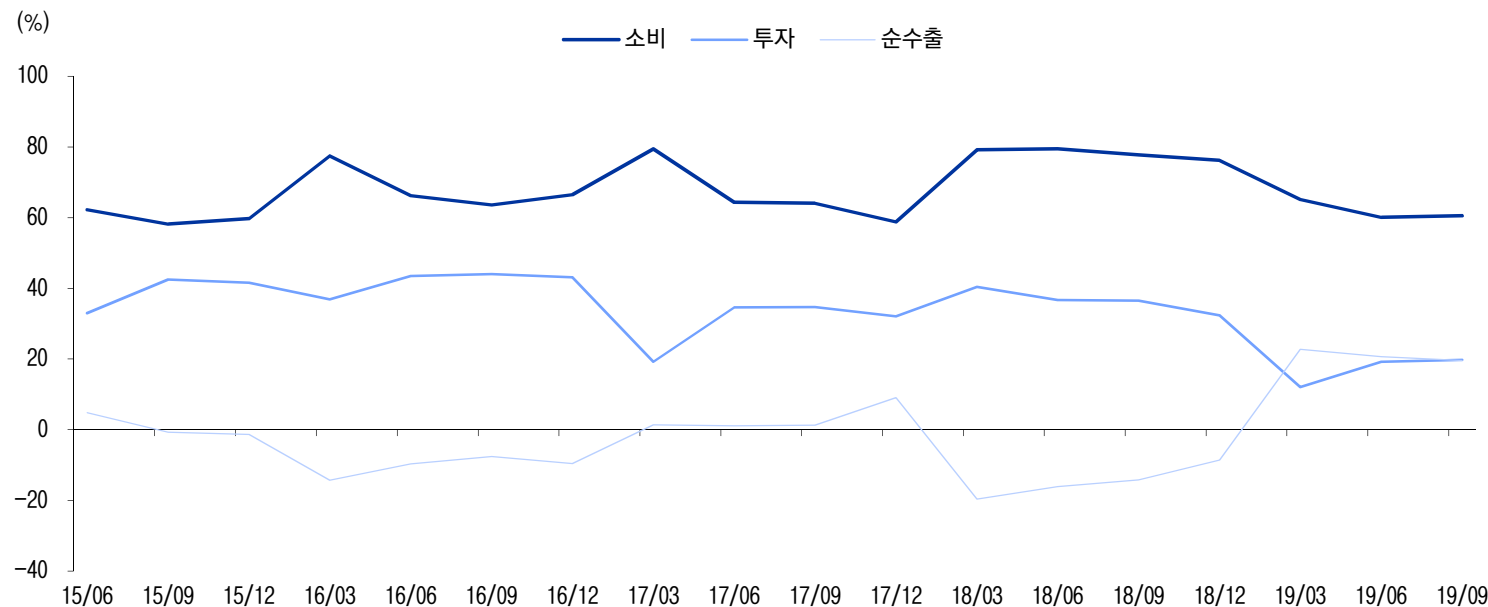
● 중국 경제성장률 6% 기록

- 중국 경제성장률이 6%를 기록. 기존 컨센서스인 6.1%를 소폭 하회
- 중국 경제성장률 하락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우려가 커질 수 있는 구간

●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

- 2018년 이후의 추세로 보면 의외로 상승했던 순수출이 감소. 순수출 상승이 수입의 감소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경기에는 부정적
- 최근 중국의 정책 방향성을 본다면 경제성장률 방어를 위해서는 소비의 증가가 필요
- 중국의 소비확대 정책의 가속화 기대. 경기에 대한 우려감으로 미중 무역분쟁의 빠른 해결에 신경을 쓸 가능성도 확대

중국 경제성장률 지출별 기여도



China – 부진한 경기지표, 소비의 개선이 관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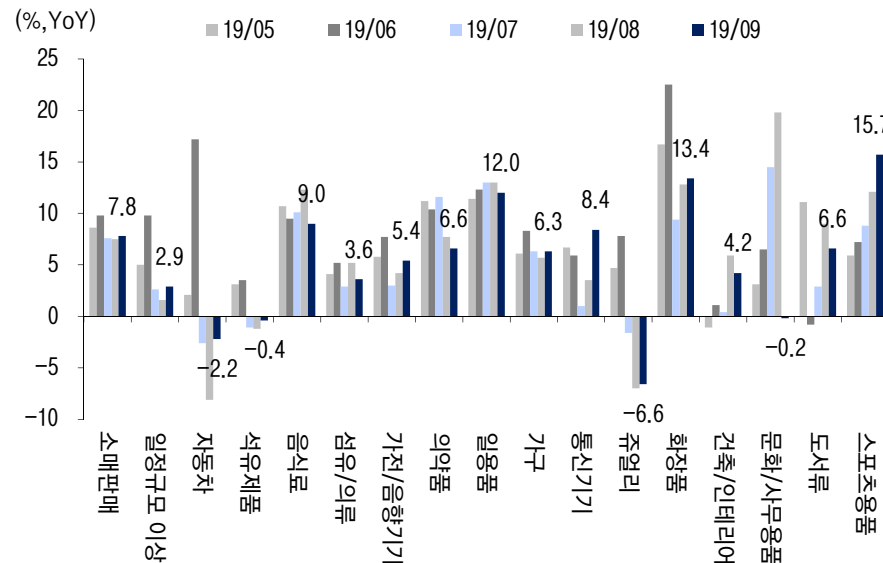
● 중국 GDP 성장률 둔화, 2% 부족한 소비 회복

- 3Q19 GDP 성장률 6.0%. 당초 시장에서 우려했던 6% 선 붕괴는 면했으나, 전분기 대비 -0.2% 하락하며 경기 둔화 확인
- 지표 부진의 원인은 여전히 소비. 국경절 이연 효과 감안해야겠지만 회복이라 보기는 아직 어려운 수준
- 내년도 중국경제의 경착륙 방어와 미국과의 체제 경쟁 위해서는 소비에서의 보완책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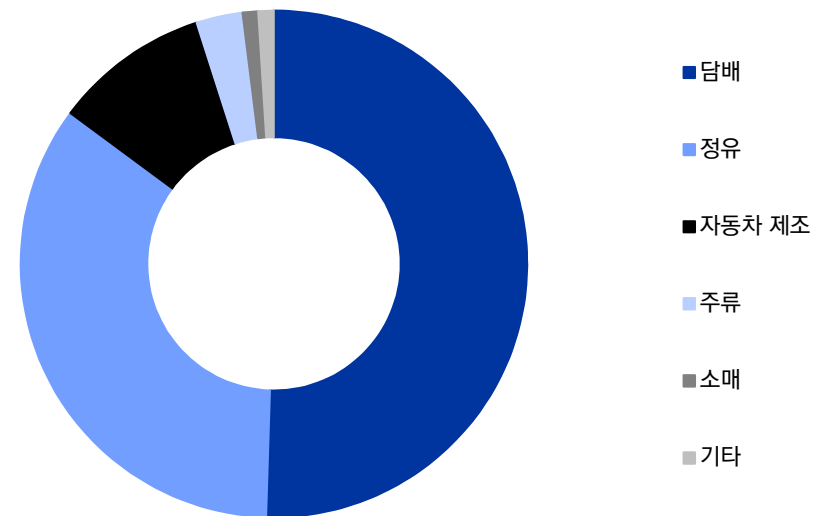
● 거론되기 시작한 소비세 개혁, 주류/자동차가 타겟

- 10월 17일, 재정부 관계자는 現 경기 상황 하에서 소비세 개혁 절실. 향후 소비세 개혁 입법화 추진할 것이라 언급
- 구체적인 소비세 개편안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으나, 개편 시 최종소비자의 부담 축소 → 소비 회복에 일조할 수 있는 부분
- 이미 10월 9일 국무원은 감세 정책에 관한 개혁안 마련. 추진 가속화로 향후 개편 시 주류/자동차 등 일부 분야의 소비 개선 기대

올해도 소비, 내년에도 소비가 중요하다



소비세 대부분은 담배/주류/자동차로 구성



Commodity – 니켈 가격의 하락 전환, Why?

● 니켈 가격의 하락 전환, 문제는 Ex. 인도네시아의 공급과 중국의 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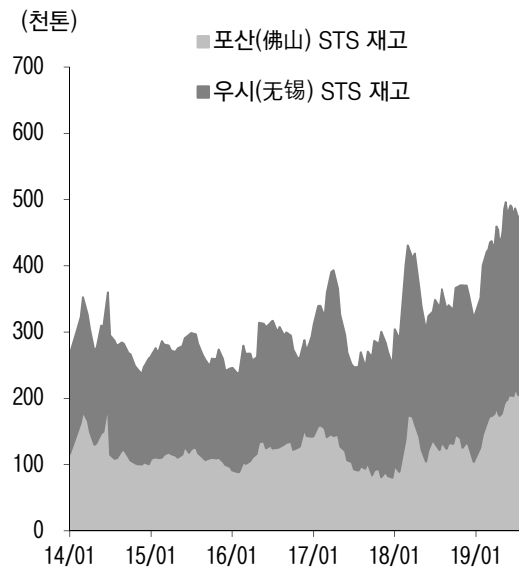
- 내년 인니의 원광수출 금지가 도래 임박에도 불구하고, LME 니켈 가격은 톤당 17,000달러 선에서 16,000달러 선으로 하락
- 3분기까지 부진한 중국 인프라 투자로 STS 재고는 높은 수준 유지
- 특히, Vale의 Onca Puma 니켈광산이 브라질 현지 법원으로부터 가동 허가 + 수요우위 축소 소식(INSO) 역시 부담으로 작용
- 이미 중국 바이어들은 주문 축소하기 시작. 전주 필리핀 Surigao의 중국향 운임비 하락은 중국향 수요 둔화를 의미

● 인니발 공급차질 영향은 유효. 다만, 부진한 수요를 감안할 경우, 현 높은 수준의 니켈 가격 일부 조정 불가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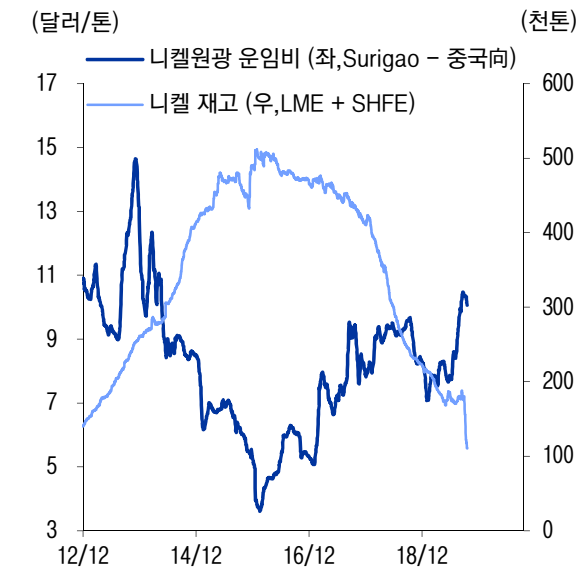
니켈 가격 둔화되기 시작, 왜?



높은 STS 재고는 부담 요인 중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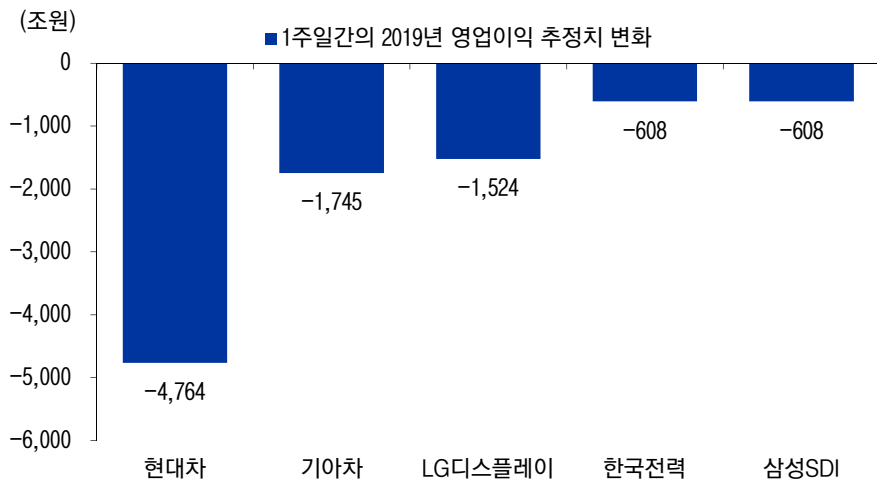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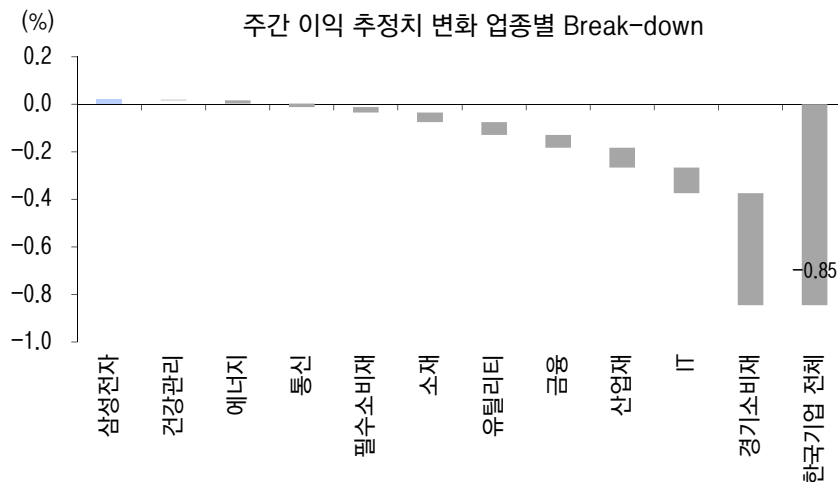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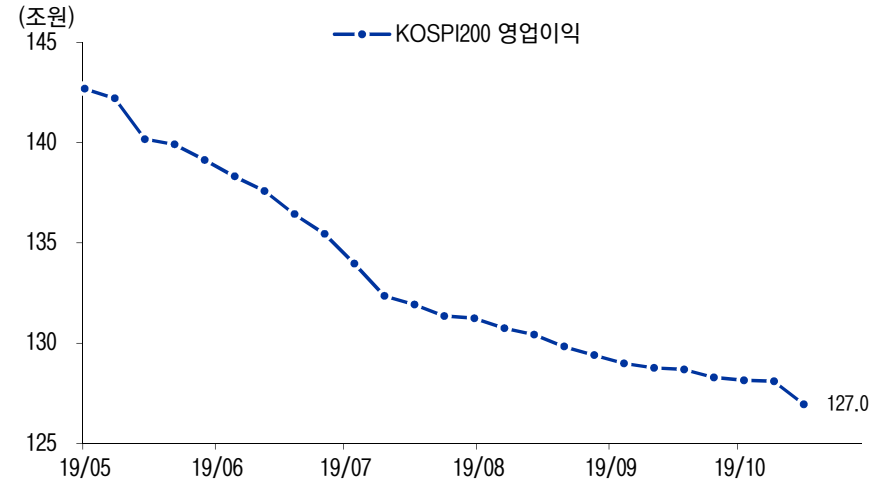
중국 바이어들, 주문 축소 → 운임비 하락



Quant – 본격적인 3/4분기 어닝 시즌 전 이익추정치 낙폭 확대

자동차/IT 업종의 일회성 비용 반영

- ✓ 10월말, 11월 초의 본격적인 어닝 시즌을 앞두고, 한국의 이익추정치가 하향 조정폭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기록
- ✓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종의 이익추정치가 상향 조정되었지만, 경기소비재와 IT 업종 이익추정치가 하향 조정된 영향
- ✓ 현대차/기아차 등의 리콜 비용 발생으로 인한 총당금 설정과, 삼성SDI의 화재로 인한 비용 반영 등의 이슈가 실적 하향 조정에 영향을 미침
- ✓ 다만 이러한 부진한 실적에도 불과하고, 주가는 크게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펀더멘털이 아닌 일회성 요인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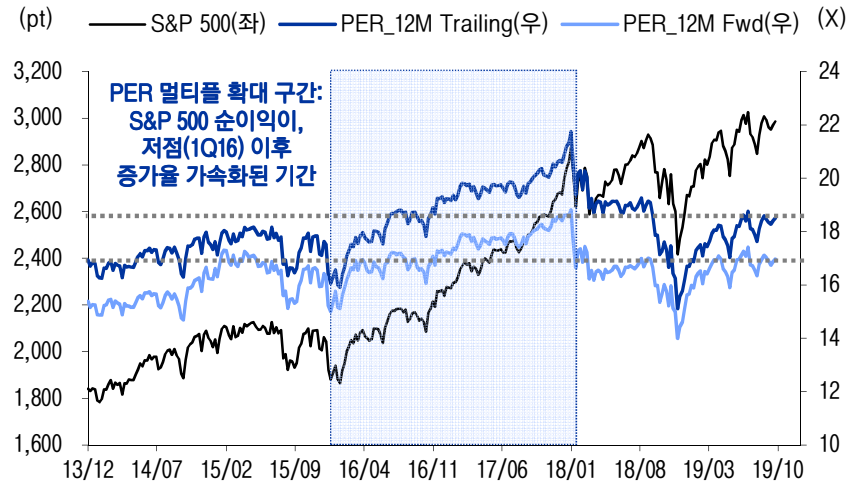


Quant – S&P 500 순익 증가율(YoY) 4Q19도 역성장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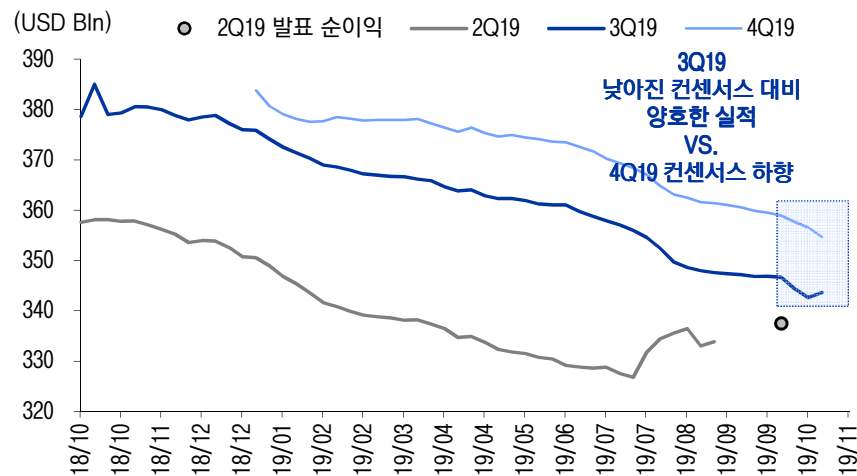
S&P 500 EPS: 12M Trailing & Forwa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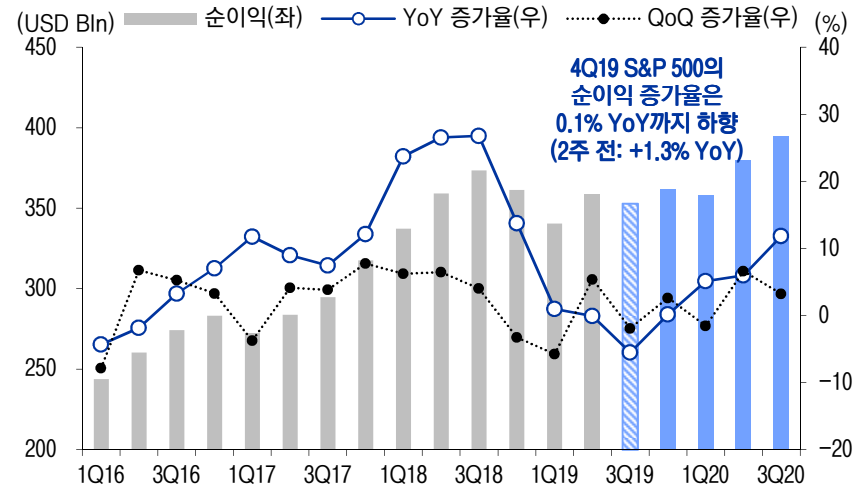
S&P 500 PER: 12M Trailing & Forward



S&P 500: 분기별 순이익 컨센서스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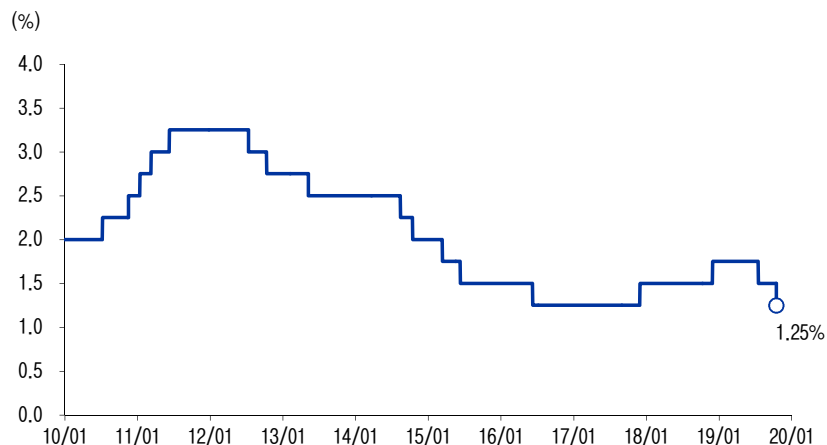
S&P 500: 분기별 순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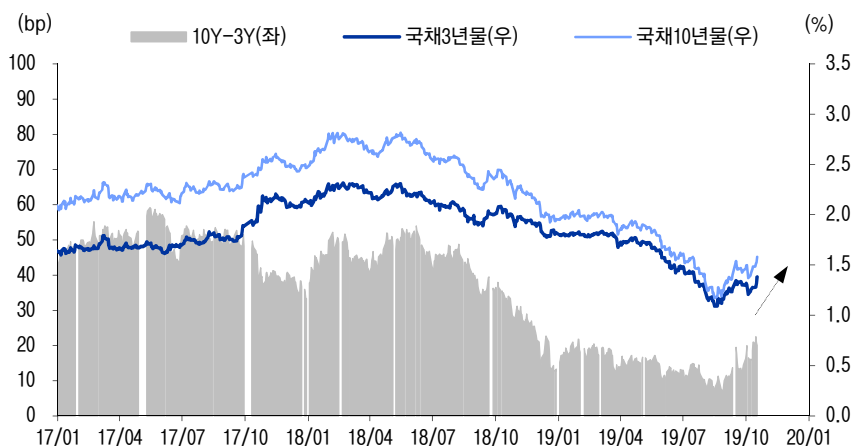
Issue – 한국 10월 금통위

- 기준금리, 시장의 예상대로 1.50% → 1.25%로 25bp 인하
 - 대내외 경기 둔화가 지속되는 등 향후 경기 흐름이 7월 성장 전망 경로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금리 인하 단행
 - 이일형 위원, 임지원 위원 금리 동결 소수의견
 - 임지원 위원의 소수의견으로 10월 금통위에 대해 매파적인 해석 나오면서 향후 추가 금리 인하 시점이 예상보다 지연될 가능성
- 이번 금통위는 정책 당국이 국내 경기 둔화를 어느 정도 인정했고, 당초 예상하던 성장률 전망치 달성 가능성이 낮아진 것을 방어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한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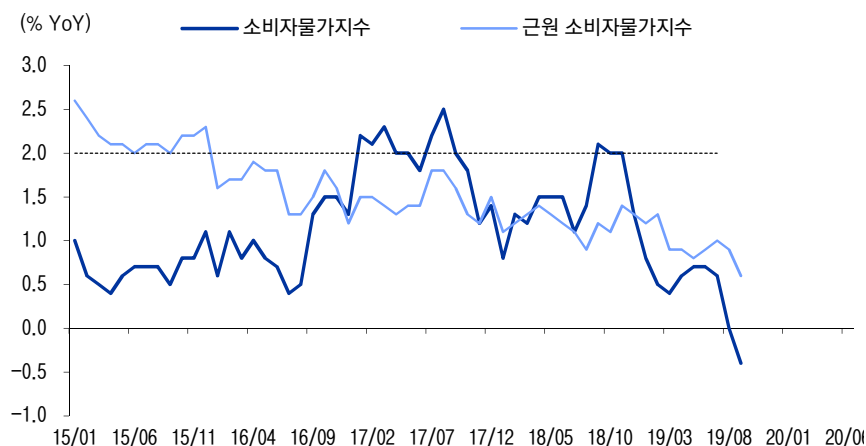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금리 인하 결정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채 금리는 상승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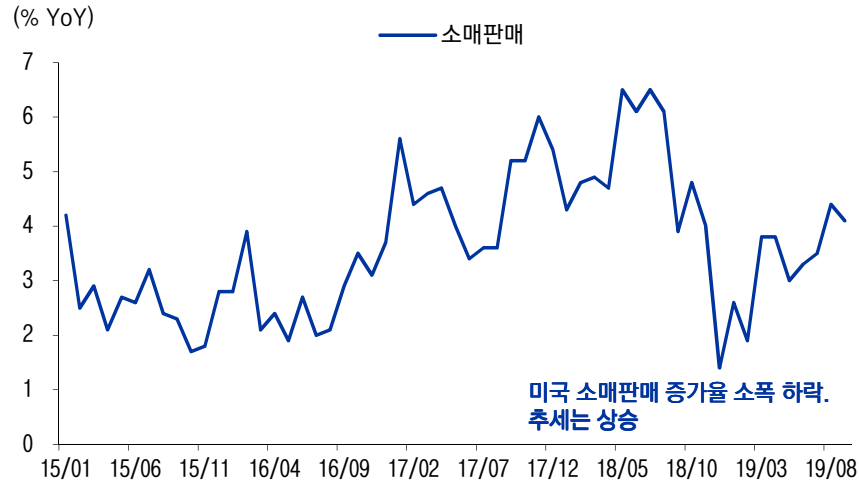


디플레이션 우려? 물가 상승률은 두 달 연속 마이너스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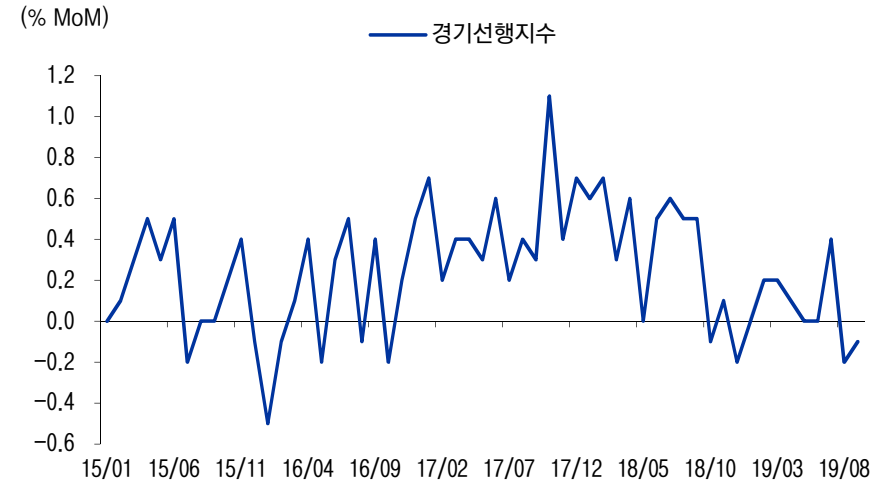


주요 경제지표 해석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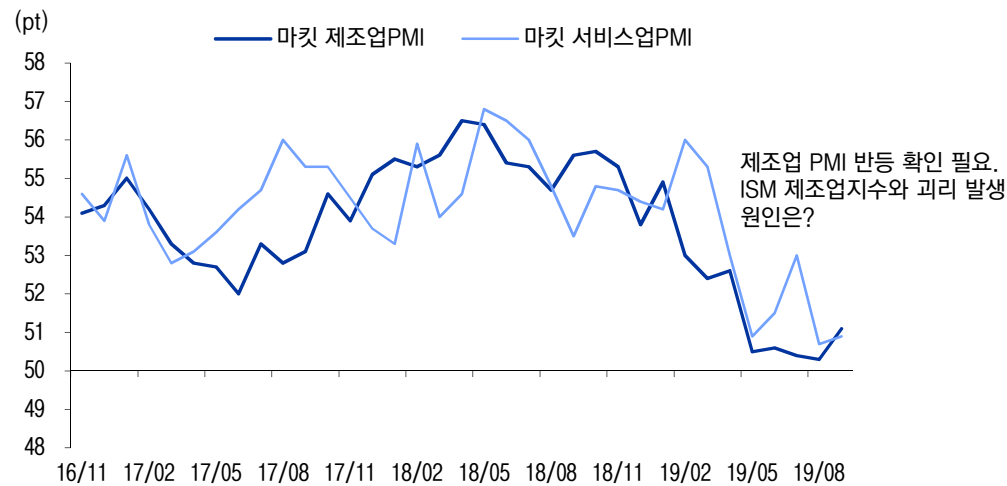
미국 소매판매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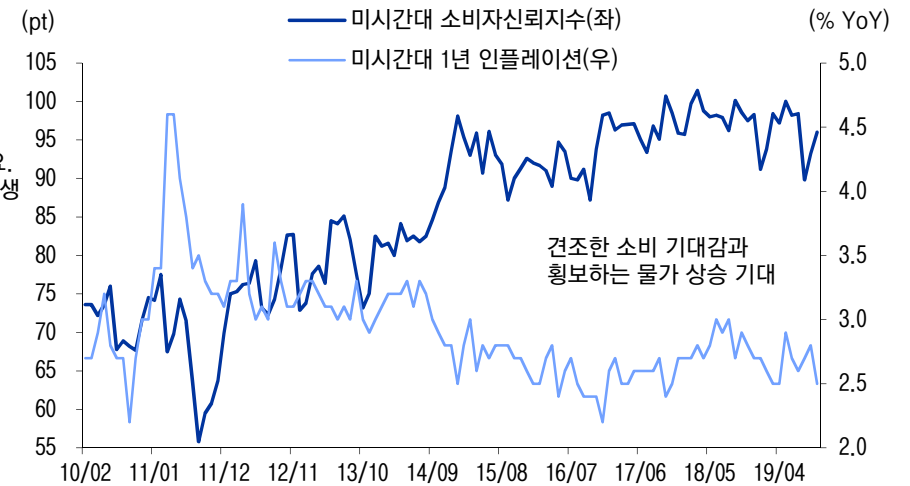
미국 경기선행지수



미국 마켓 PM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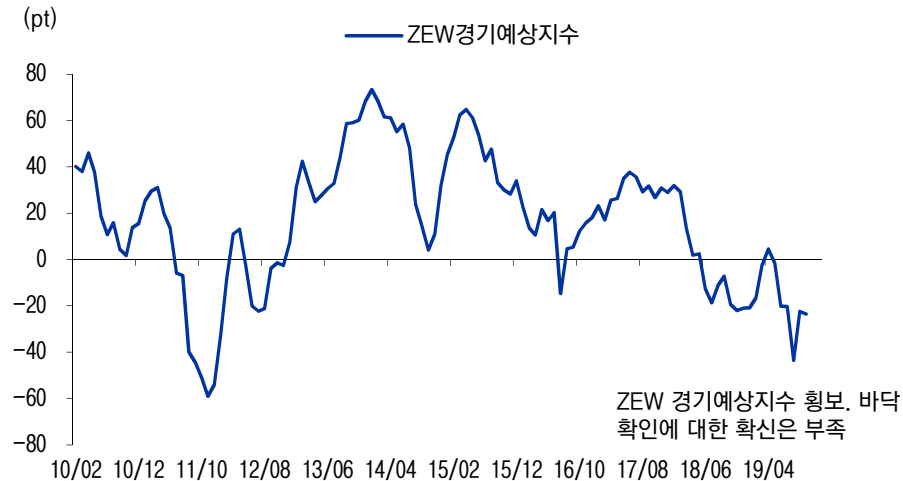


미국 미시간대 소비자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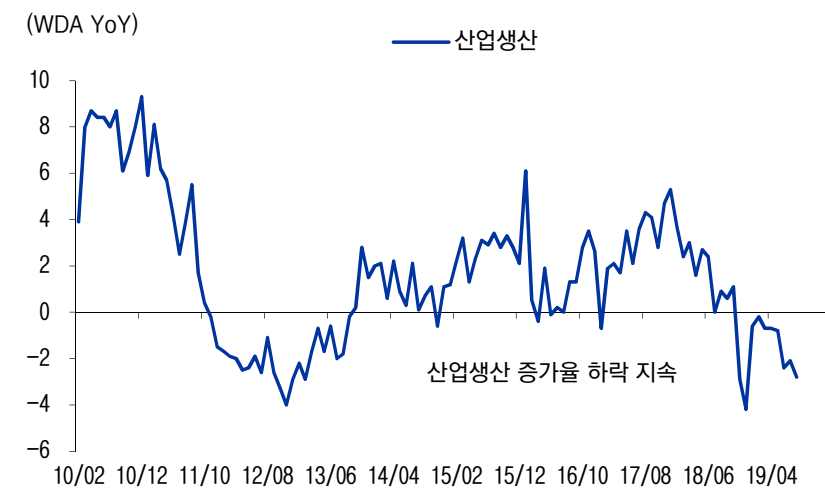


주요 경제지표 해석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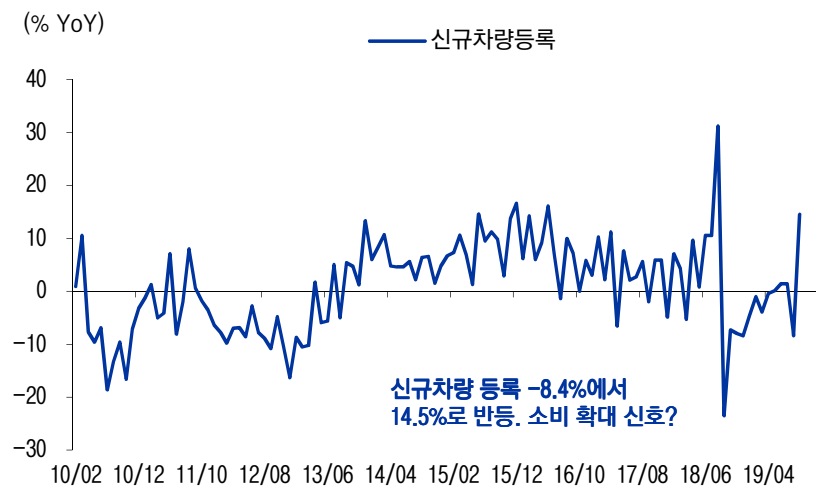
유로존 ZEW 경기예상지수



유로존 산업생산 증가율



유로존 신규차량등록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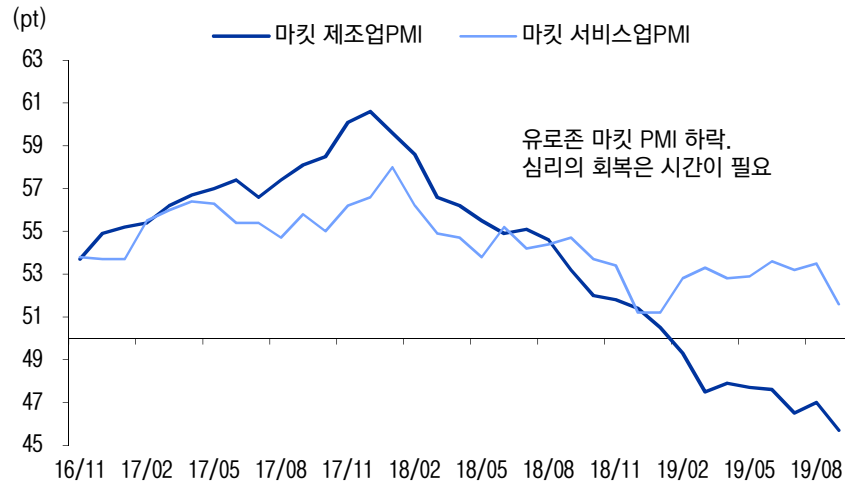


유로존 무역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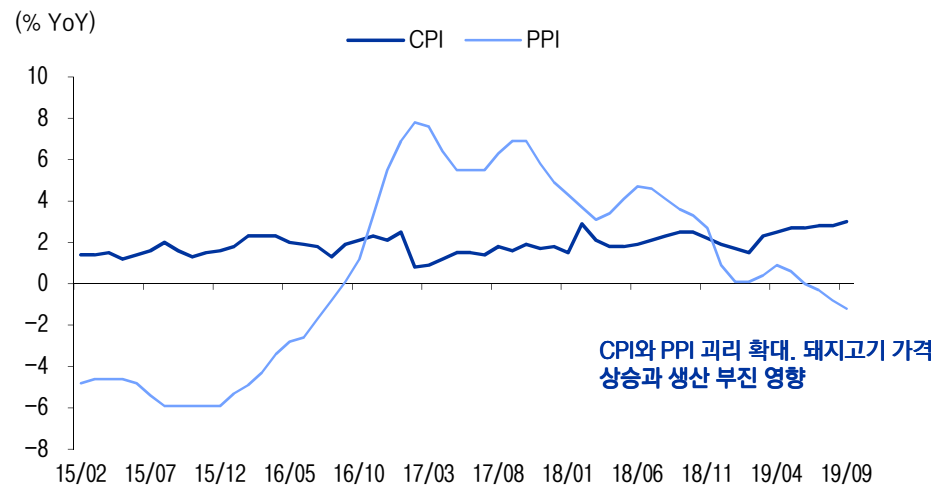


주요 경제지표 해석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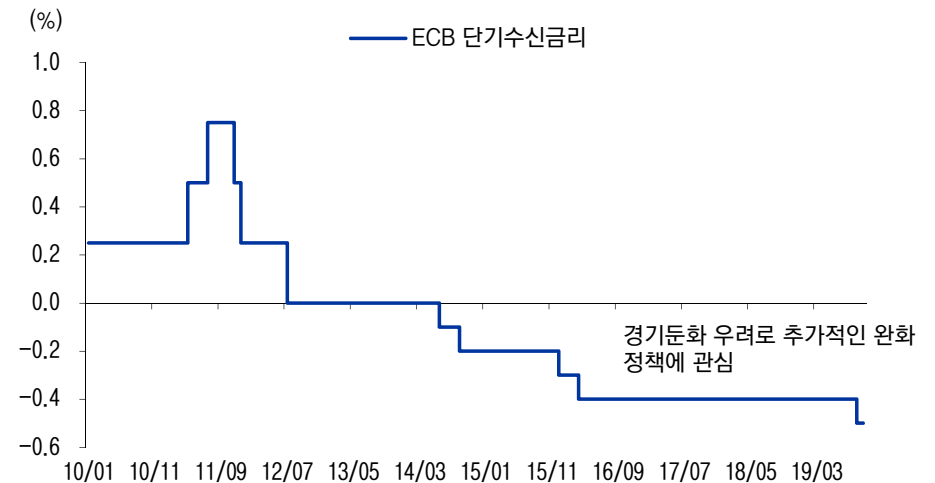
유로존 마켓 PM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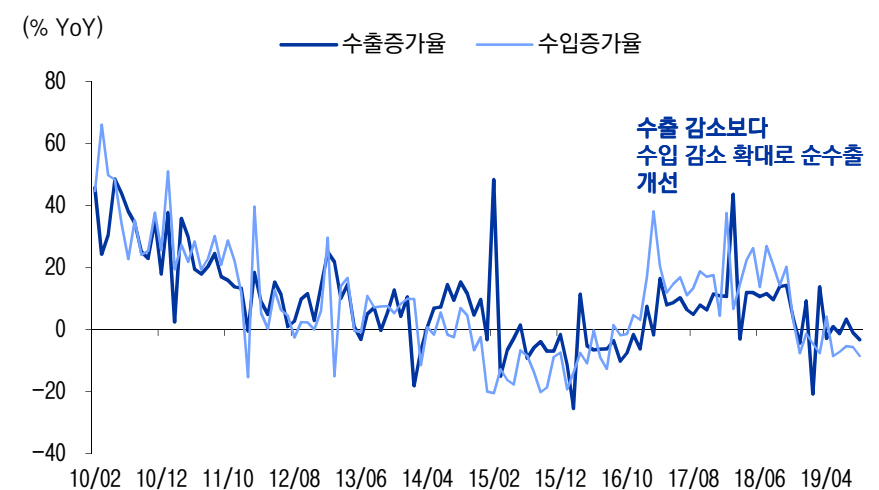
중국 물가지수



유로존 통화정책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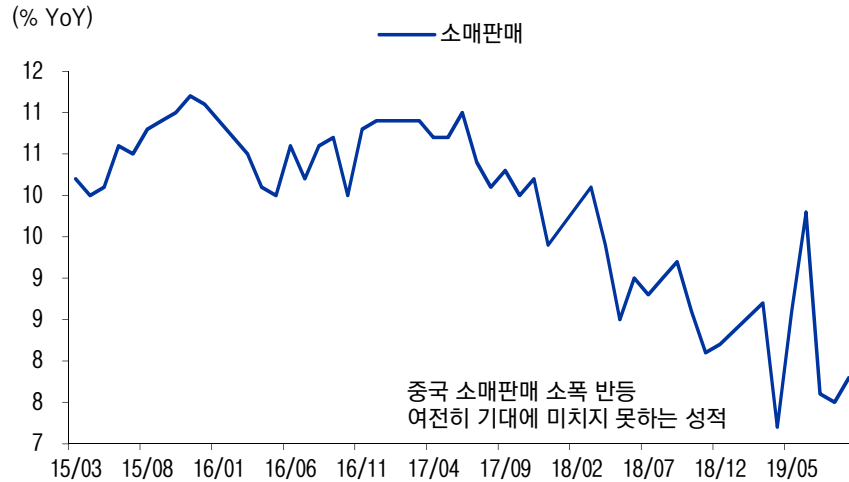


중국 수출입증가율



주요 경제지표 해석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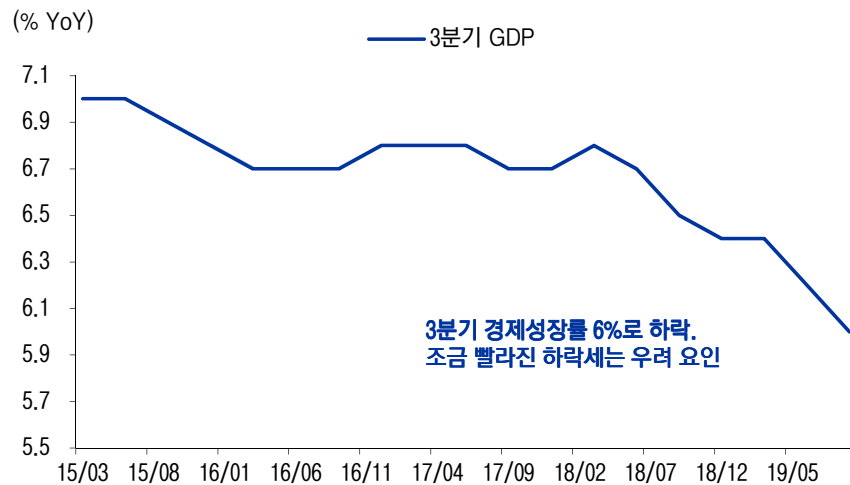
중국 소매판매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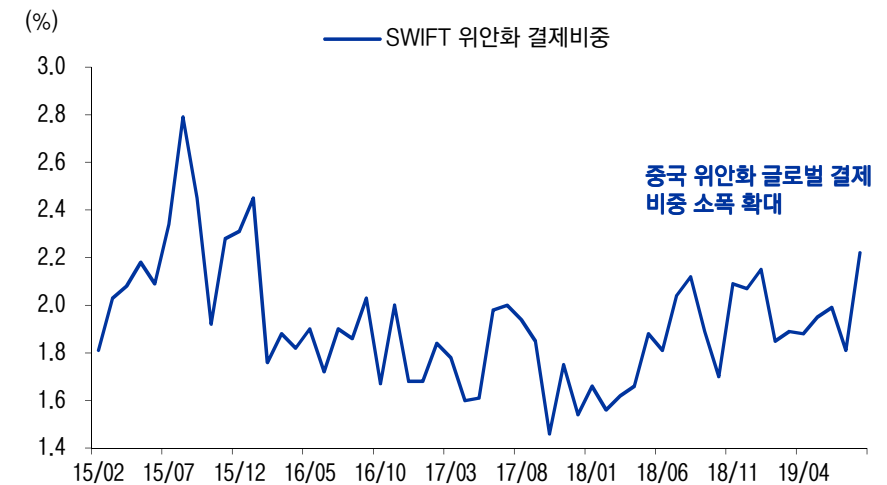
중국 부동산투자 증가율



중국 3분기 경제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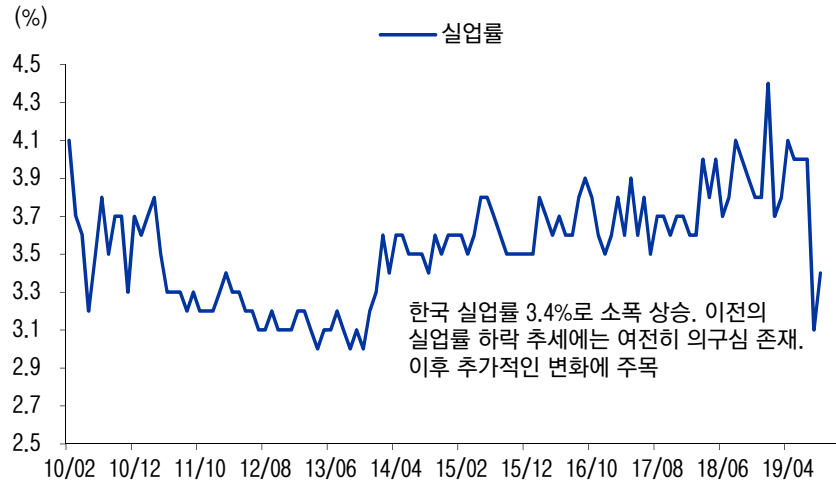


중국 SWIFT 위안화 결제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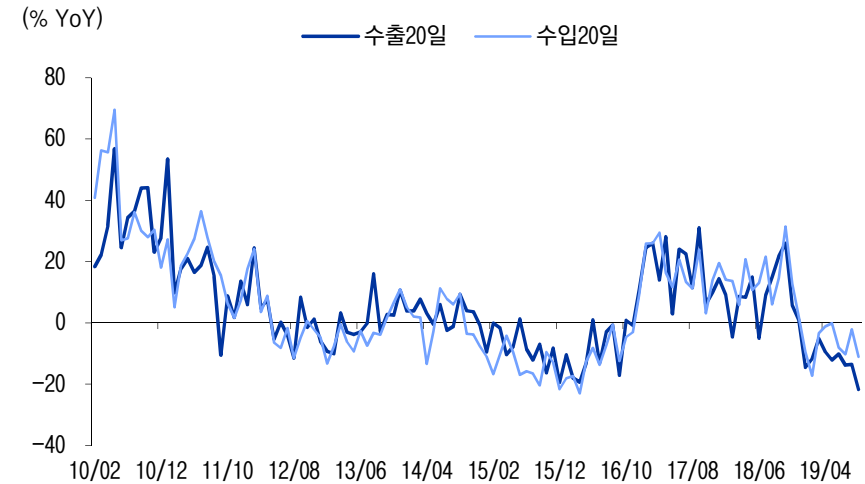


주요 경제지표 해석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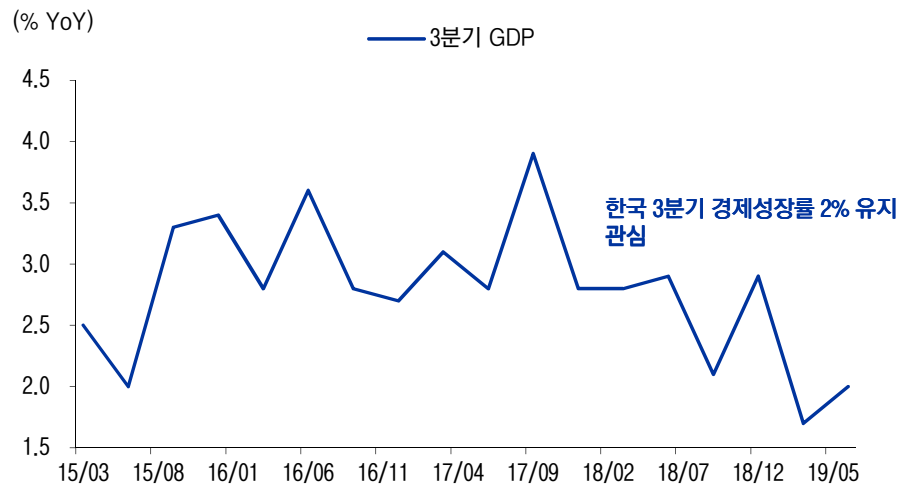
한국 실업률



한국 20일 수출입증가율



한국 3분기 경제성장률



한국 소비자심리지수



Speeches and Statement Schedule

Date	국가	발표자	성향	내용
2019.10.24	유럽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	-	- 프랑크푸르트에서 ECB 이사회 후 기자회견에서 발언
2019.10.25	유럽	프랑수아 빌로이 데 갈라우 프랑스 은행 총재	-	- 파리에서 'French Insurance Federation' 참석

주요 인물의 한 마디: About US

“모든 곳이 제로 금리에 갇혀 있는 매우 다른 세계”

“안정화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

“기관들은 제로 금리 세계라는 블랙홀에 빠진 매우 다른 세계에서 투자 정책을 생각해야 한다”

“우리도 이를 맞을 것 같아 두렵다”

(2019.10.14)



래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

“정치적, 지정학적 이슈에 너무 많은 관심을 쏟고 있어 못 보고 있지만, 세계는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투자환경은 대단히 좋지 않지만, 매일 아침 일어나 느끼는 것만큼 나쁘지도 않다”

“많은 고객과 헤지펀드가 위험을 테이블에서 치웠는데, 이는 실수”

“사람들은 주식에 덜 투자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세계가 건설적이라고 본다”

(2019.10.15)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

“미국은 터키군이 폭력을 고조시키고 무고한 시민을 위협에 빠뜨리고, 해당 지역을 불안하게 만든 데 대해 책임을 묻고 있는 것”

(2019.10.14)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연준에 대한 맹렬한 비난에 동참하고 싶지 않으며 연준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연준의 모델에는 매우 결함이 많다”

“완화 정책이 마침내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데 도움을 주기 시작했다”

“지난해 연준의 매우 심각한 긴축정책에도 감세, 규제 완화, 에너지 개방 등에 힘입어 국내 경제에 대해 옹호한다”

(2019.10.17)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주요 인물의 한 마디: About 미국 연은 총재

“솔직히, 시장 여론에 대한 나의 인내심은 근본적으로 한계에 달했다”

“연준은 은행들이 자금이 부족할 때 저렴하게 긴급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이른바 할인 창구를 제공하고 있지만 정작 은행들은 그것을 활용하지 않아 표면적으로는 쓸모가 없어졌다”

“은행들은 그것을 사용하면 자신들이 취약해 보인다고 생각하기 때문”



닐 카시카리
미국 미네애플리스
연은 총재

“경제는 계속해서 견고한 속도로 확장하고 있다”

“고용 성장은 강하고 실업률은 낮고 소비 경제는 건강할 뿐 아니라 가게는 자신감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아직 우리는 물가 목표에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도달하지 못했다”

“무역 불확실성과 세계 경제 둔화 등 역풍은 몰아치기 시작했고 제조업과 기업 투자가 상당히 둔화하도록 만들었다”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은행들이 할인 창구를 꺼렸기 때문에 뉴욕 연은은 이들을 만족시키려 새로운 안전망을 더 빠르게 내놓아야만 했다”

“이것은 분명히 극단적인 재정지원(the height of entitlement)”

“당초 은행들은 스스로 유동성 수요를 계획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정치가 더 큰 목소리를 낼수록 우리는 지표와 분석에 더 집중할 것”

(2019.10.14)



닐 카시카리
미국 미네애플리스
연은 총재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이러한 역풍에 맞서 경제 확장을 유지하기 위해 지난 7월과 9월 연방기금금리를 인하하는 부양 정책을 적용했다”

“이 통화 정책은 경제가 계속해서 성장하도록 도울 것이고 따라서 우리는 완전 고용과 가격 안정성과 관련해 추가적인 진전을 이뤄낼 수 있을 것”

(2019.10.15)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주요 인물의 한 마디: About 미국 연은 총재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는 대다수의 전망보다 전반적인 경제 활동이 둔화할 수 있다는 점”

“연준이 앞으로 추가적인 완화정책을 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결정은 회의마다 이뤄질 것”

(2019.10.15)



제임스 볼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레포 시장의 반응 규모는 최근 경험의 범위를 크게 벗어났다”

“경제와 기업투자, 제조업에서 더 광범위한 둔화를 목격하게 되면, 이것이 고용과 가계 소득을 해치고, 경제에 타격을 주기 시작할 것이라는 점이 우려스럽다”

(2019.10.17)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우리의 정책 결정은 경제를 궤도에 올리고 직면한 위험을 다루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번 일시적 개입이) “시장의 압박을 줄이고, 금리 분산을 좁히고, 자금시장의 환경을 연방기금금리를 목표 범위 내로 조성하는 데 바라던 효과를 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급준비금의 기본적 규모가 지속해서 충분한 지준 체계와 일치되는 수준으로 나아갈 것”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향후 금리는 매회의 마다 결정하게 될 것”

“미국 경제는 좋은 위치에 있으며, 전망도 기본적으로는 우호적”

“다만 11년 확장기에 접어든 경제는 몇몇 명백한 위험에 직면해 있다”

“올해 기업투자는 눈에 띄게 감소했다”

“글로벌 성장 전망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으며, 글로벌 디스인플레이션 압력은 미 인플레이 전망도 흐리게 한다”

(2019.10.18)



리처드 클라리다
미국 연준 부의장

주요 인물의 한 마디: About 미국 연은 총재

“내가 보는 경제 전망으로는 통화 정책적인 대응을 요구하지 않는다”

“제조업과 기업투자의 약세가 뚜렷하지만, 통화정책이 이들의 위험을 상쇄하는 데 적절한 도구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통화정책 조치와 관련된 비용에도 무게를 두면 제조업이나 기업들의 위험을 줄이는지 확실하지 않다”



에스더 조지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

“시장 금리 하락이 상당한 부양을 제공했다”

“연준이 금리 인하를 결정하기 전에 조금 더 많은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열려있다”

“10월 회의에서 금리 인하가 있을지, 12월까지 결정을 기다릴지 나는 불가론자”

“이번 회의에 열린 마음으로 임할 것이지만, 다음 금리 인하를 결정하기 전에 시간을 더 갖는 게 현명할 수도 있다”



로버트 카플란
댈러스 연은 총재

“미국의 완만한 성장, 낮은 실업률, 낮고 안정적인 인플레이션은 모두 올해 예상과 일치한다”

“근본적으로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경제 전반의 전망을 바꾸는 방식으로 하방 위험이 더 폭넓게 경제에 파급될 때 통화정책 기조를 바꿀 용의가 있다”

(2019.10.18)



에스더 조지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

“시장이 결정하는 금리가 하락해 상당한 부양을 제공했다”

“금리를 인하하기 전에 소비가 약세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기다리는 것은 실수”

“현재 연속되는 금리 인하도 완만하고 제한적이길 희망한다”

“수익률 곡선 역전은 통화 정책 기조가 너무 타이트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2019.10.18)



로버트 카플란
댈러스 연은 총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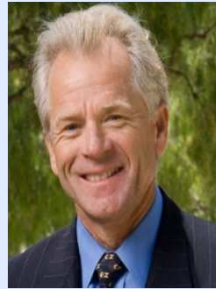
주요 인물의 한 마디: About 미중 무역분쟁

“모든 것이 잘 돌아간다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오는 11월 17일 칠레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합의문에 서명할 수 있다”

“농가에는 이번 합의가 아주 큰 뉴스이자 호재”

“중국은 지금까지 그들이 해왔던 것보다 두 배는 더 많은 농산물을 사들일 뿐 아니라 미국 농산물에 대한 중요한 장벽도 낮출 것”

(2019.10.13)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

“합의가 타결되지 않는다면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합의가 타결될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주 회담에서 지식재산권 문제와 금융서비스, 환율 문제를 농업과 관련한 매우 중요한 구조적인 문제 등을 다뤘다”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문서화 대상에 대해 근본적인 합의를 했다”

(2019.10.14)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즉시 구매하기로 했다”

“앞으로 3~4주 이내에 합의가 서명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즉시 우리 농산물을 대규모로 사들이기 시작하는 것”

“그들은 이미 시작했다!”

(2019.10.1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중국은 3주 전부터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하기 시작했다”

“(1단계)합의가 체결될 때까지 중국이 농산물 구매를 시작하지 않을 것이라는 일부 잘못된 보도가 있다”

(2019.10.16)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주요 인물의 한 마디: About Brexit

“브렉시트는 여전히 심각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인플레이션 압력은 천천히 움직이겠지만, 천천히 상승하는 것은 사실 놀라운 일이 아닐 것”

“낮은 실업률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생각을 포기할 때가 아니다”

“ECB는 부양책이라는 선택에서 벗어나지 않겠지만, 그에 따른 비용과 이익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

(2019.10.16)



엔스 바이트만
독일 분데스뱅크 총재

“뜻이 있는 곳에 합의가 있다. 우리는 합의를 이뤄냈다!”

“그것은 EU와 영국을 위해 공정하고 균형 잡힌 협정이며, 해법을 찾기 위한 우리의 약속을 증명한다”

“나는 EU 정상회의가 이 합의를 승인할 것을 촉구한다”

“이제는 브렉시트 절차를 완료하고 앞으로 EU와 영국의 파트너십에 관한 논의로 가능한 빨리 나아가야 할 때”

(2019.10.16)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

“우리는 통제권을 되찾는 아주 훌륭한 새 (브렉시트) 합의를 이뤘다”

“이제 의회는 토요일 브렉시트를 완료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생활비, 국민건강서비스(NHS), 강력 범죄, 환경 등 다른 우선순위로 나아갈 수 있을 것”

“우리는 유일한 영국으로 EU 관세동맹을 떠날 것이고, 전 세계와 무역 거래를 할 수 있다”

“비민주적인 ‘백스톱(안전장치)’은 폐지됐고, 북아일랜드인들은 그들이 살아가는 법을 책임질 것”

(2019.10.16)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영국이 민주국가로서 브렉시트를 완료하고 10월 31일 탈퇴할 기회가 왔다”

“3년 반만에 우리는 여기까지 왔다. 영국에게 쉽지 않은 경험이었다. 길고도 고통스러웠고 분열이 일어났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의 나라로서 함께할 시간이다. 의원들이 함께 일을 완수해야 한다”

(2019.10.17)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주요 인물의 한 마디: About South Korea

“금년 예산의 이불용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등 재정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경제정책 수립과 점검에 총력을 다하는 것과 함께 정책 주요 내용, 정책 효과, 경제 상황 등 우리 경제의 현주소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다각적이고 창의적인 홍보 노력을 강화해달라”

(2019.10.14)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취업자 수, 고용률, 실업률 등 3대 고용지표가 모두 크게 개선되며 고용시장의 뚜렷한 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

“고용 여건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인구 등 구조적 둔화요인이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도 녹록지 않은 상황”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 추진에 고삐를 죄겠다”

(2019.10.16)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지난주 미중 무역협상 부분합의로 10월 15일로 예정된 미국의 대중 관세 인상이 보류되는 등 불확실성이 완화되며 안정세를 되찾는 모습”

“소비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고용 측면에서도 꾸준한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3분기 들어 외국인 직접투자 실적도 첨단소재·부품, AI등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증가세로 전환된 점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충분한 정책여력, 강한 의지와 함께 과거 위기를 가장 극복했던 한국의 '극복 DNA'를 바탕으로 어려운 대외여건을 다시 한번 잘 헤쳐나갈 것”

“신용부도스와프(CDS)가 지난 2008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에서도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가 이어지고 있다”

“건조한 소비 흐름, 뚜렷해지고 있는 고용회복세, 소비자·기업 심리 개선 등 실물경제에서 긍정적인 모습을 확인했다”

(2019.10.16)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요 인물의 한 마디: About South Korea

“경기가 어려울 때 재정지출을 확대해 경기를 보강하고 경제에 힘을 불어넣는 것은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

“정부는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의 급격한 위축을 막고 경기반등 여건을 조성하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런 노력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올해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

“(올해) 2%대 성장을 달성을 위해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할 계획” “내년의 경우 IMF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의 전망하듯이 세계 경제 개선 등으로 올해보다 성장세가 개선될 것”

“최근 소비가 양호하고 소비와 기업 심리가 개선되는 등 긍정적인 신호도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경우 8월 45만명, 9월 35만명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증가하는 등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리나라처럼 제조업 기반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이런 흐름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 정부가 중심을 잡고 경제 활력과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민간 활력을 높이는 데 건설투자의 역할도 크다. 우리 정부는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을 쓰는 대신에 국민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건설투자에 주력해왔다. 이 방향을 견지하면서 필요한 건설투자는 확대해나갈 것이다”

(2019.10.17)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

“2020년 예산이 올해보다 9.3% 증가한 것은 경기 지원을 위한 확장재정과 재정 건전성을 균형 있게 고려한 결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20년 39.8%, 2023년 46.4%까지 증가하지만, 한국의 재정 여력을 고려할 때 충분히 감내 가능한 수준”

“우리 기업의 생산 차질 등 직접적인 피해는 없으나, 관련 불확실성이 기업 활동에 부담이 되고 있다”

(2019.10.17)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요 인물의 한 마디: About 한국은행 금통위

“오늘 기준금리를 1.25%로 낮췄지만, 필요시 금융경제 상황 대응 여력 아직 남아 있다”

“현재 금리정책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 있기 때문에 금리 이외의 추가적인 정책수단 시행을 고려할 때는 아직 아니다”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얼마나 크게 가져갈지에 대해서는 주요 대외 리스크 요인의 전개 상황과 국내경제 물가에 미치는 영향,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 또한 7월과 이달의 금리인하 효과 등을 지켜보며 결정해 나가겠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국내도 가능성이 잠재해 있기 때문에 그 동향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고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은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

“전세계적으로 대외여건이 악화된 것을 고려한 것”

“내년중 세계 교역신장률이 올해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 반도체 경기도 점차 회복되면서 올해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점에 기초해 올해보다는 내년이 성장을 더 높아지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7월 금리를 인하했지만 그 이후에도 가계부채 증가세는 둔화되는 등 금융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었다”

“저금리가 장기화된다면 부동산이라든가 위험자산으로의 자금유입 확대될 가능성이 잠재돼 있지만 이는 큰 폭의 통화완화정책을 채택한 대부분 나라에서 나타난 현상”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우리가 유념할 정도로 생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경제에 미친 영향은 현재까지 제한적으로 본다”

(2019.10.16)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주요 인물의 한 마디: About 일본 & 홍콩

“완만하게 확대하고 있다”

“주저 없이 추가적인 금융완화 조치를
강구하겠다”

(해외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경제)하락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

“다음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경제 · 물가
동향을 다시 점검하겠다”

(태풍 하기비스 피해에 대해)
“금융기능 유지, 자금 결제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2019.10.15)



구로다 하루히코
BOJ 총재

“전체적인 리스크는 여전히 높은 상황”

“불확실성이 조금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영국 의회를 통과할지 불투명해
불확실성이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다”

(2019.10.18)



구로다 하루히코
BOJ 총재

“세계 무역이 감소세로 전환하고 제조업
생산도 부진하다”

“(당초) 올해부터 내년까지 세계 경제가
회복된다는 시나리오였는데 회복의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

“무역마찰의 범위가 매우 넓어 앞으로
어떻게 될지 확실하지 않다”



구로다 하루히코
BOJ 총재

“주택이 홍콩이 직면한 가장 어려운 생계
이슈”

“주택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며 사회적
조화와 안정에 핵심적이다”

“나는 모든 홍콩 시민과 그의 가족들이 더는
주택 문제에 사로잡히거나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겠다는 분명한 목표를 제시한다.
우리가 모두 지분을 가진 이 도시 홍콩에서
자신들의 집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

(2019.10.16)



캐리 램
홍콩 행정장관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신중호, 최광혁, 염동찬, 정다운, 최진영, 우혜영).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